金지사 "통합의대, 의료계 설득 노력을"

의대 없는 전남, 지역의료 완결성 논리 접근 지시

"일반적인 의료계의 증원 반대 논리와 달라"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목포대와 순천대가 인내 끝에 대통합에 합의해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제 의료계가 지역의료 완결체계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 노력을 기울여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국립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일반적인 의료계의 증원 반대 논리와는 아주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통합대학 국립의대는 도민 여론을 잘 수렴해 절차에 따라 신청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그 이상으로 달성한 것이어서 모든 게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반대 의사를 밝힌 의료계를 설득해 정부가 의과대학 설립 추진 과정에 짐을 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가 전남도의 통합대학 국립의대 추진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의대 없는 전남을 꼭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도 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립의과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병원과 지역 민간 중소병원·의료원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고 어려운 병치료도 함께 참여토록 해 수준을 높이는 등 지역 의료 체계가 피라미드 구조로 완결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로 모든 실·국이 함께 나서 설득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2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전남권 의대 설립 방식으로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추천서를 제출했다.

당시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 명의의 추천서를 통해 "지난 11월15일 양 대학이 지역 상생·화합을 통해 미래 발전의 동력을 만들고 정부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응하는 대학교 통합을 통한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추진'이라는 대승적 합의를 이뤄냈다"며 "대학 통합 합의에 따라 정부 요청에 부응하는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추천한다"고 2026학년도 개교를 위한 신속한 절차 추진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김 지사는 "두 대학의 통합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규모화하면서 미래 교육 발전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는 차원으로 중앙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통합대학이 성과가 날 때까지 적극 지원하고 특히 전남도의 여러 지역 발전 프로젝트와 연구개발(R&D) 사업에 전략적으로 협업해 대학 경쟁력을 키우자"고 독려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김 수출 3억달러 달성과 관련, "시설 현대화와 위생에 집중해야 한다"며 "김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도록 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 도 뿐만 아니라, 수산 분야 전문가, 국회의원, 대학,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협력해 전방위 건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26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5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채택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헌안 발의 강력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서울에서 제7차 임시회를 열어 4개 시·도의회(광주·전남·부산·경남) 의장이 공동 제출한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부마항쟁과 5·18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건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원동력이 됐다"며 "그 결과 헌법이 개정됐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정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건의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도 "헌법의 기본원리가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마항쟁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빠져 있다"며 "부마항쟁과 5·18은 특정 지역·세대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인 만큼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정부와 제22대 국회에 조속한 개헌안 발의를 촉구했다.

건의안은 부마항쟁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와 22대 국회에 개헌안 발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기수희 기자

道, 내년 노인일자리 6만7천여개 제공

내달 모집…노인일자리 활성화 워크숍도 진행

전남도는 26일 "2025년 2천696억원의 예산을 확보, 6만7천여개의 노인일자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시·군은 오는 12월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

전남도는 올해 2천592억원을 들여 지난해보다 8천여명 늘어난 6만5천여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이날 완도생활문화센터에서 노인일자리 종사자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남도 노인일자리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선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수행기관 종사자 등 15명을 격려하고 타 시·도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2025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워크숍이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동안 최일선에서 수고한 종사자들에게 격려와 힐링의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노인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해 한층 더 따뜻한 전남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道, 유튜브 '복지기동대TV' 오픈

전남도는 26일 "전날 전남마을방송국 유튜브 채널에 복지기동대의 따뜻한 활동을 기록하고 알리는 소통 채널인 '복지기동대TV'를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전남마을방송국은 주민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통해 도내 8천500개 마을 공동체의 소식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복지기동대TV는 전남도와 전남마을방송국이 협업하고 목포, 영광, 고흥 등 마을활동가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복지기동대의 활동을 공유하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이다.

이번 협업은 '전남마을방송국'과 '복지기동대'의 활동 지향점이 일치해 진행하게 됐다. /양시원 기자

시의회 예결위서도 광주FC 지원금 10억 삭감

본예산比 847억 증가 7조8천617억 의결…오늘 본회의 의결

광주시의회가 상임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광주FC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 10억원을 삭감했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전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열어 광주시가 제출한 예산안 7조8천617억원을 의결했다. 본예산 7조7천770억원보다 1.1%(847억원) 증가한 규모다.

세입 예산은 64억700만원을 증액하고 30억5천만원을 감액했다. 세출 예산은 소방 특별회계 전출금 19억8천500만원 등 97억6천500만원(17건)을 증액하고 난자동결시술비 지원과 중증 뇌 병변 장애인 낮 활동 지원 등 79억4천700만원(10건)을 삭감했다.

특히 광주시가 편성한 광주FC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참가 지원금 10억6천7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광주FC가 지난해 말 ACLE 진출이 확정됐음에도 올해 상반기 추경 예산 심의에서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지출 이후 사후 보전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FC는 54억원의 대출 채무를 안고 있어 자본 잠식 상태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프로축구연맹의 재정 건전화 제도에 따라 1군 무대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광주소방안전본부가 화재진압 차량 구매를 위해 편성한 예산 19억8천500만원의 경우 행안부에서 삭감되면서 인건비로 우선 집행했으나 광주시가 상생카드 발행 비용을 활용, 충당했다.

광주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수희 기자

전남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성료'

특별자치도 설치 응원 등 지역발전 헌신 다짐

전남도는 26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전남도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열려 2025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응원 등 지역 발전에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사)전남새마을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양재원 전남새마을회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새마을지도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취약계층 나눔 봉사활동 등 올해 새마을회의 활동을 돌이켜보는 '2024 보람의 현장' 영상을 시청하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했다.

유공자 시상에선 전남새마을회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양재원 전남새마을회장이 새마을훈장을 수상하는 등 새마을지도자 4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새마을지도자들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며 도정에 힘을 보탰다.

김영록 지사는 "재난재해 예방 활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 탄소중립운동 등 살기 좋은 행복 전남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열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전남의 대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양시원 기자

coupang fulfillment services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 (재택근무)

취업 연계 훈련생 모집

접수 ~24.12. 01(일) 까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는
쿠팡의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의 계열사입니다. Coupang Fulfillment Services(CFS)는 물류센터(Fulfillment Center)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훈련내용 : 재택 사무직

직무	훈련내용	모집인원	근로시간 (휴게시간 30분 포함)
재택 사무직	- 웹모니터링 업무(주제별 데이터 수집 및 정리) - Call 업무 (쿠팡 근무경험자, 지원자, 재직자에게 목적에 맞춰 응대 후 내용 기록) * 업무교육 후 적정 업무에 배치	8명	- 09:30~14:00 (오전) 또는 13:00~17:30 (오후) (오전, 오후 중 선택가능) - 주 5일, 일 4시간 근무

근무조건
□ 고용형태: 계약직(최초 1년 계약,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1년, 무기계약 연장 평가 진행)
* 최초 1년 계약 수습 12주 포함
□ 근무시간: 09:30~14:00 또는 13:00~17:30(일 4시간, 주 5일, 30분 휴게시간)
□ 급여수준: 월108만원(통신비 포함, 2025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복리후생: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임직원단체 상해보험가입(본인,가족 대상), 경조사지원, 명절선물, 종합건강검진(1년 재직이상), 쿠팡캐시 적립/지급

훈련생 특전
□ 훈련비용 전액 국비지원 (훈련비, 교재 등)
□ 훈련수당 및 교통비 지급 (최대 월 334,000원),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여부에 따라 상이함
□ 식비(중식) 지원
□ 훈련 중 상해보험 가입
□ 훈련시간: 10:00~16:45 (2.5주 실무 통학훈련), 13:15~17:00 (2.5주 재택실습, 웹캠 및 헤드셋 제공)

일정
서류접수 ▸ 면 접 ▸ 교육훈련 ▸ 최종평가 ▸ 입 사

□ 서류접수 : ~ 2024.12.01(일) 20:00 (이메일 제출)
□ 면접일자 및 장소 : 2024.12.04(수) 광주디지털훈련센터
□ 맞춤훈련 합격자 발표 : 2024.12.05(목)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 훈련기간 : 2024.12.09(월) ~ 2025.01.10.(금), 5주
□ 훈련장소 : 광주디지털훈련센터 및 재택
□ 채용예정일자 : 2025.01.13(월)
※ 합격자발표, 면접일, 훈련기간, 채용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지원 자격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자
□ 광주디지털훈련센터에 통학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
□ 맞춤훈련을 성실히 참여하고 근무할 자
□ 인터넷, 엑셀(기초) 등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집에서 재택근무 환경(컴퓨터 또는 노트북 설치, 인터넷 가능, 엑셀사용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지원상담 ☎ 062) 448-1188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양동) 19층